

SOCIETY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광주·전남 환경단체 촉구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대로 된 보상 조정을 촉구했다.

피해자 다수가 구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전남환경연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총 360명(광주 192명·전남 168명)이다. 이중 256명(광주 137명·전남 119명)은 피해구제법의 인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4명(광주 55명·전남 49명)은 구제법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미인정자 104명 중 39명(광주 21명·전남 1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환경부는 가해 기업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다수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미인정 받거나 재판 중이고, 구제가 인정되더라도 절대다수의 피해등급이 너무 낮아 조정에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정부의 일방적인 잘못이기에 ‘조정’이란 이름의 ‘합의’가 아닌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 조선대 ‘2025 글로벌대학 혁신 아젠다’ 발표

“법인 산하 대학 통합·웰에이징 특화 비전 수립”

광주시와 ‘웰에이징 Asia No.1 대학’ 설명회 개최 지역사회와 초고령화 선도할 고등교육 모델 제시

올해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도전하는 조선대학교가 법인 산하 3개 대학 통합과 ‘웰에이징’ 특화 전략을 혁신 비전으로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선대는 전남 대학 본관에서 광주시,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와 함께 ‘웰에이징 Asia No.1 대학’을 주제로 글로벌대학 혁신기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법인 산하 3개 대학이

공동 추진하는 글로벌대학 혁신기회의 비전을 공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 간 통합 전략과 광주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웰에이징 특성화 교과과정 공동 구축 △기업을 찾아오는 초·고급 저비용 테스트베드 협력 모델 개발 △웰에이징 분야 글로벌 확산 전략 △공공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의견과 제

안이 활발히 오갔다. 조선대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창업밸리 구축 사업과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인프라와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복지기관, 관련 기업, 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기반 웰에이징 분야의 창업과 기술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청년층 창업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김춘성 총장은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되며, 고령친화산업은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빅데이터 기반 웰에이징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무대로 진출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웰에이징 특화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장은 “웰에이징 분야에서 광주시의 추진사항과 조선대의 혁신전략이 맞물려 글로벌대학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로 지역-대학 간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해 10월부터 광

주시 대학인재정책과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고령친화산업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의료·복지 △AI·디지털 분야 등을 결합한 ‘웰에이징 혁신 선도대학’ 모델을 구체화해 왔다.

또 광주시와의 연계 회의를 통해 지역 신산업 수요 및 ‘웰에이징’ 중심의 특화 모델을 수립했으며, 대학혁신위원회·교무위원회·이사회 등에 글로벌대학 추진 경과와 사항을 수시로 공유하며 대학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대학 측은 앞으로도 광주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초고령화 시대를 선도할 고등교육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서구,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학교 공유주차장 운영 등 호평

광주 서구는 2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의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와 적극행정 이행 성과, 체감도,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확대 운영 등

5대 항목 17개 지표의 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서구는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한 ‘학교 공유주차장 운영’,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내일을 선물하는 ‘가족돌봄청년수당 지원’,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할링파크’, 만원으로 행복할 ‘착한물품공유센터’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팀’을 선발해 시상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운영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관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힘썼다.
윤용성 기자



착한 서구 장사의 신 멘토단 발대식 25일 광주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열린 ‘착한 서구 장사의 신 멘토단(3기) 발대식’에서 김기강 서구청장과 참석자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미복귀’ 전남대 의대생 제적 처분 받는다

전남대 “예정 통보서 발송 방침…구제할 방안 없다” 조선대 의대 신입생 등 689명 휴학…상황 예의주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전남대학교 의대생 상당수가 미복귀에 따른 제적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대에 따르면 미등록·미복귀 의대생 전원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전남대는 지난 21일 의대생들의 휴학원을 반려 조치했고, 전남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다.

전남대는 복학 신청 종료 후 의대생 등록 및 제적 처분 현황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수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전남대 의대 총원은 893명이다. 이 중 이번 학기에 등록한 2025학번 163명과 복학생 30여명, 군 입대와 질병

휴학자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가 미등록 제적 대상자로 추산된다.

지난해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 재학생 650여명이 동맹 휴학에 참여했는데, 이들 대다수가 대학 측의 휴학원 반려에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남대는 제적 대상자 확정 후 공휴일을 제외한 열흘 동안 제적 처분 방침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 기간 학생들은 제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상 출석 중이나 단순 실수에 의한 복학 신청 누락 등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전남대는 제적 처분 대상자 등 자세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제적 처분의 구제

방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 휴학생 전원에게도 이미 고지했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업일수의 1/4인 오는 27일 오후5시까지가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조선대의 경우 의대생 878명 중 신입생 150명을 포함한 189명만 이번 학기에 재학 중이다.

나머지 689명은 휴학 상태이며, 이중 지난해 동맹휴학에 나선 학생은 676명으로 파악된다.

조선대는 미등록·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 전남대와 마찬가지로 제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전남대와 조선대는 편입학 확대 등 의대생 대거 제적에 따른 별도의 총원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동구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더 삶 집수리 Day…6월까지 45가구·5억3200만원 투입

광주 동구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광주 동구는 25일 산수동 512-33번지 호랑포두메 마을정원에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착공을 기념하는 ‘더 삶 집수리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 숙원이던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주민과 함께 집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더 삶’ 집수리 현판 전달, 활성화 기원 퍼포먼스, 집수리 참여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활성화 기원 퍼포먼스에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함께 퍼즐을 맞췄다. 퍼즐 조각은 기존 산수동의 오래된 주거지를 배경으로 하며, 주민이 직접 조각을 맞추며 변화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의미를 담았다.

임택 청장과 2명의 집주인은 직접 답장 페인트칠, 대문 교체 등을 하며 집을 수리했다.

동구는 오는 6월까지 총 45가구(취약계층 11가구, 일반 가구 34가구)를 대상으로 5억3200만원(지원금 4억9800만원, 자부담 3400만원)을 투입한다.

사업 참여자 조연수씨(57·산수2동)는

“1977년 지어진 집에 15년간 지나다 보니 벽이 갈라져 장마철만 되면 천장에 물이 떨어져 고생했다”며 “2023년 장마철 비가 많이 내려 정전됐는데 전기공사 비용만 300만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 주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깨끗해졌다는 주민 말에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 노후 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택 청장은 “전국 자치구 최초로 노후 저층 주거지 사업을 시작했다”며 “2026년까지 산수동 일대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동구 전체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는 올 상반기 내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N-NEXUS
N넥서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지니어의 IT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연구 & 개발 통합운영체제, 지능형 영상처리 솔루션, 데이터센터 솔루션
제조 & 제작 주·원래 단위 및 CCTV 시스템
E S S 시스템 산업용 에어컨 및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형상설계, 아연이 인산 용접 보조 장치
설계 & 지원 유·무선망 관제, 스마트시티, 영상관제, 보안·지능형관제, 열화상선 시스템
유지보수 & 관리 ICT 관리,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공 & 설치 정보통신망, 스마트시티 설계, 공학 ICT 분야 설계, ITS 설계, 열화상선 시스템, 데이터센터설계

TEL 062-719-1080-2